

**SERMON 25 SEPTEMBER 2016**

**1Timothy 6:6-19**

**Luke 16:19-31**

많은 교회들은 복음서를 읽은 후 “이것은 주님의 복음서입니다” 라는 구절을 다같이 말한 후 “주님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로 응답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사용하는 구절을 더 좋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운데 함께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스펠”이 “주님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을 압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삶과 사역, 심지어 그의 죽음의 이야기 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또한 계속적인 새로운 부활의 삶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희망과 그 이상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하여 생각하였을 때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야기의 형태를 가진 가르침, 예수님의 관점을 암시하는 분명한 비유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교회력에 따르는 성경말씀인 누가복음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입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간 삶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많은 음식과 음료, 평범한 식탁들과 축제의 식탁들; 이러한 식탁의 자리에 관여된 사람들, 각계 계층의 사람들; 병을 통한 사람들의 투쟁에 관한 이야기와 가난에 대한 문제들; 그것은 부와 돈의 사용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 입니다 이 모든 삶에 예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사랑, 이해와 목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입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필요를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며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 입니다. 복음은 신학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관계없는 무엇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순수함을 얻고 영적으로 충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매일의 삶의 이야기 안에서 알아가는 것에 관한 것 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신 말씀과 행동이 그들 자신의 삶과, 그들 자신의 고통과 그들의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갈망함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도덕한 관리인에 관해서 생각해보고 오늘의 비유를 봅니다. 그것은 아주 명확한 이야기 입니다. 부자는, 그의 부를 과시하는 모습인 비싼 보라색 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연회를 엽니다. 부자는 그의 성에 있고, 가난한자는 그의 문에 있습니다. 가난한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아마 기아와 개들이 와서 그 헌테를 핥아서 감염이 된 것과 연관이 있을 것 입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부터 남은 것을 받기를 원했음에도 그는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은 예수님과 그 당대에 누가 복음서를 듣는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의미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대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을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유한가요? 아마도, 만약 우리가 상대적인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럴 것 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재정적인 신분에 의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에 대해 심판을 하진 않을 것 입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 입니다, 물론 전혀 우리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두 남자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자는 무명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거지같이 가난한자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나사로를 의미 합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너무 잔인 합니다-그의 삶이 끝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입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는 누가 복음의 큰 역전의 예를 봅니다: 가난한자는 올림을 받고 부자는 내림을 받습니다. 그는 그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드리고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뜹니다. 그는 거기에서도 나사로를 그의 노예로서 물을 가져오게 시키십니다. 그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을 사실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에게 전혀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부자를 “애야”로 부르고 어떻게 그가 나사로가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무시하고 살았는지를 그에게 상기 시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며 응답하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간구 합니다 나사로를 부자의 아비의 집으로 보내고 그의 형제들에게 경고를 하여 그들의 운명이 그와 같이 되지 않게 하도록 합니다. 부자는 그의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이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했고 그의 집 밖에 있는 관계가 없는 남자는 무시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이 전제 이야기를 아주 날카로운 감정의 초점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문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음의 문처럼 단단한 신체적 벽 입니다.

그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이 이야기에서 두 주인공 사람 사이에 아주 깊은 틈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깊은 틈은 이제 연결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다른 종류의 깊은 구렁텅이가 있었습니다: 무관심과 몰 인정함의 깊은 구렁텅이였습니다. 그것이 연결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매일 매일의 삶 속에 아주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비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부자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 하면 그들이 변화 될 것 이라고 부자가 바램을 이야기 하자 아브라함이 논박함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만약 사람이 그들의 현재 삶 속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죽음에서부터 살아난 사람으로부터는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강한 진술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암시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 비유는 제가 다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이른 시간에 찾아가 질문한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오실 그분” 메시아 인지 물었던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의 실천들은 그들의 행동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강력하신 정치적 리더이셨기 때문 입니다. 그대신 매일 일상의 삶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오늘 비유는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지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보고 듣고 배운다면 지금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 보다 도 훨씬 큰 부분 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나이 많은, 젊은, 잘 차려 입은, 자유로운 복장, 문신이 있는, 터번을 쓴, 히잡을 쓴, 사리를 입은, 흰색 피부, 노란 피부, 갈색 피부, 분홍색 피부, 건강한 사람, 장애인 등등.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그들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 그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아주 젊고 친절한, 비안카(Bianca)는 제가 이 주에 한번씩 하는 운동 트레이너입니다. Biancas 는 현재 그녀의 팔에 문신이 있습니다. Bianca 는 거의 삼 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처음 작은 문신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녀는 의사를 기다리는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대기실로 왔습니다. 아이는 꽤 분주하게 행동했고 Bianca 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자 그 어머니는 아이를 당기며 그 아이에게 “그녀가 너무 거칠다”고 Bianca 가까이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의 남편 Clive 와 저는 “중동인 외모”를 한 남매와 함께 레스토랑에 앉아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히잡을 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 우리 방향으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시선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그녀의 박사학위를 막 마쳤습니다. 그녀의 남자 형제는 그의

친척들로부터 앞으로 이슬람 학자가 되기 위해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두 상황 안에도 많은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삶에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숙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바라는 우리가 노숙자들이 술, 마약, 또는 게임 중독에 의해서 그들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길거리로 내 몰릴 때 에는 아주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안다면, 우리는 그들을 개인으로 보지 않을 것 입니다, 비록 사회의 시각으로는 귀한 존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귀한 존재들 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여기에서 린다라 프로그램의 기회를 통해 인간들의 고통의 이야기를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인해 인식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참 슬펐습니다, 센츄럴 역에서 기차를 내려 제가 정신 병원에서부터 알아온 남자를 만났습니다, 몸이 아파 보였고 누더기 모습을 하고 복도 창틀에 앉아있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저는 그에게 멈추어 서어야 했었습니다. 우리는 TV 나 인터넷을 통해서 듣게 되는 수 많은 주위의 이야기들에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아주 많은 좋은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슬픈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제안하는 것같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또 만약 가능하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부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부자에게서는 일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부자는 결코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부는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가 그의 편안한 삶을 변화 시켜야 했겠습니까! 그 부자가 불의를 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삶의 초점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부를 보여주는 의상과 음식의 이미지가 그 자신이 되었습니다. 부자는 그 자신의 독특함을 잃어버리고 그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만을 창조해 냅니다. 부자의 이야기는 결국 기회를 잃고 영혼을 잃어 버리는 가장 슬픈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나사로는 독특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의 삶은 아마 그의 이름의 의미를 충족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가 아닌 것을 인척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 결코 그럴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좋은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 이지 인간의 성공 또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자이든 가난한자이든, 우리가 어떠한 분류를 사용하던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문제 입니다, 단지 우리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독창성은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사람들로 부터 대단한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모든 사람 들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들이 중요하게 들려져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의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적인 관점인지를 이야기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자신이 옳은 장소에 속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불의와 빈곤과 그들의 삶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보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깊은 의미를 추구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비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여정이 함께 이루어진 이들 가운데 -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던 누구 이던지 간에 - 이러한 하나님을 찾기를 우리에게 이야기 합니다. 그것은 신앙으로 살아오신 이들의 삶의 이야기 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음은 은혜, 자비, 이해와 동정에 관한 것 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